

S#3 언니의 직장

직원들이 모두 나간 점심시간

현정은 위압적인 최실장 앞에 고갤 숙였다

최실장 팀장님. 우리 공과 사는 구분 좀 해요
현정 알았어..
최실장 반말하지마 미친... 여기 직장이고 나 니 상사야
현정 알겠습니다
최실장 내가 너한테 임팀장, 이라고 하면 일 하자는 얘기가 알았어?
현정 네
최실장 현정아 라고 부르면. 제대로 놀고 즐기자는 얘기고. 오케이?
현정 ...
최실장 현정아 대답 좀 해...
현정 알았어
최실장 반말하지 말라고 줌....
현정 현정이라고 불렀잖아.
최실장

최실장은 답답해서 미치기 일보직전 입니다

그 와중에 현정은 동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끊기 바쁩니다

최실장 왜 안 받아
현정 아 그냥 동생이야
최실장 받아 나 얘기 다 끝났으니까

현정은 급히 사무실을 나갑니다

최실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상만 잔뜩 구집니다